



가톨릭 안동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통합 생태적 교회를 향하여

제308호 2024년 11월 24일(나해)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성서 주간)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 (창세 1,31)

<떨종위기 야생생물 II 급>: 애기송이풀(*Pedicularis ishidozana*)

제1독서 다니엘 예언서 7,13-14

화답송 ◎ 주님은 임금님, 위엄을 입으셨네.

손상오 신부 곡



제2독서 요한 묵시록 1,5ㄱ-8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받으소서!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는 복되어라!

◎ 알렐루야.

복음 요한 18,33ㄴ-37

영성체송 주님이 영원한 임금으로 앉으셨네.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오픈카톡

온 누리의 임금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인의 삶

가톨릭상지대학교 교목처장
이요람 요람 신부



이제껏 많은 순간이 행복했습니다만, 여러 나날을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 지낸 기억도 있습니다.

어둠던 그 시간은 내가 피하고 싶은 순간과 시간들이 분명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것임을 알면서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며 고갯짓을 하고서 구태여 다른 길로 간 그때였지요.

이러한 부분이 저를 흔들어 놓고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어떤 자리에 심겨진다는 것, 누군가와 살을 부대끼며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시간을 공유하며 지낸다는 것. 이중 어느 것 하나 하느님의 계획과 그분 뜻에서 어긋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숭고한 ‘아버지의 마음’을 미약한 내가 헤아리지 못하고 부정하는 순간에 발생하게 됩니다.

나는 피하고 싶는데 아버지는 자꾸만 마주하라 하십니다. 나는 모른 채하고 싶는데 아버지는 끊임없이 선택하라 하십니다. 나는, 나를 옴아매는 듯한 이 멍에를 훌렁 벗어던지고 싶는데, 아버지는 다름 아닌 그것으로 십자가를 만들어 당신의 수난과 고통에 동참하라 이끄십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마음과 저편에 놓인 아버지의 마음. 이것은 좀처럼 일치를 이루지 못합니다. 분명 떨어져 있는데 마찰과 부딪힘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다 우리 인간은 흔들리고 아파하고 이내 어둠의 시간 가운데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마다 어김없이 기억을 더듬어 고개를 들고서 오늘 복음 속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다보아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신을 바짝 차려 살아야겠다는 새 다짐을 뒤야겠습니다.

군중의 수군거림과 날카로운 손가락질. 뽕뽕이로 가득

찬 빌라도의 질문. 사람들의 거친 눈초리와 마구 쏟아지는 쫓대 없는 비난의 말.

형장은 이처럼 오해와 무지로 가득합니다. 그곳에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십니다.

양다문 입술. 지그시 감은 눈. 고성인 난무하는 그곳에서조차 오롯한 마음으로 다소곳이 서 계신 주님. 이처럼 주님은 죽음으로 생명의 신비를 드러내시고 약함으로 강인함을 증거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런 분을 삶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나의 주님! 내 삶의 왕이시라 고백합니다.

주님은 마련된 모든 것을 피하지 않고, 누군가가 꺼렸던 것을 끝없이 선택하십니다. 영적 멍에와 구원의 십자가를 기쁜 마음으로 지고 가십니다.

이토록 영광스러운, 온 누리의 임금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목소리를 듣는다.”(요한 18,37)

형제자매 여러분. “부르심 받은 자들은 많지만 선택된 자들은 적”은 것처럼,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은 많겠으나 참 진리 속에서 영광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 또한 적을 것입니다.

마찰과 부딪힘이 아닌 영광된 하느님과의 일치로 나아가는 길은 그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 여정의 시작은 작은 것 안에서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고 실천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명심하며 살아가도록 합시다.

지켜주세요 <애기송이풀>

표지 사진 설명



H.M

애기송이풀은 한반도 고유종으로 5~6월에 연보라색 꽃이 피며 주로 유량이 풍부한 계곡의 그늘진 북쪽 경사면에서 자랍니다. 줄기가 없고 잎자루가 뿌리에서 모여나는데, 전체적으로 털이 조금 있으며 뿌리에서 잎과 꽃대가 바로 올라옵니다. 겉보기가 송이풀과 유사하며 낮고 작아 보여서 ‘애기’라는 이름이 붙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나라의 경기도, 강원도, 경상도 등지에 분포하며 북한의 개성 천마산에도 분포합니다.

풀 중에는 애기풀, 애기똥풀, 애기송이풀과 같이 ‘애기’라는 이름을 가진 풀이 있습니다. 대체로 작고 귀여우며, 양중맞은 꽃이 핍니다. 사람들에게 아기는 때 묻지 않은 순수한 존재이며 보호해야 할 대상입니다. 하느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도 똑같이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다양한 생명체가 공존해야 지구 생태계는 균형을 이루면서 건강해 집니다. 신앙인답게 아기를 돌보듯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통합적 생태의 삶을 살아가리라 다짐해 봅시다.

의성본당-정규석 프란치스코

※ 2024년 「가톨릭안동」 1면에는 <찬미반오소서 7년 여정: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의 일환으로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야생생물’에 대해 다룹니다. <국립생태원>에서 제공해 준 사진과 자료를 참고하여 목상글을 담습니다.

서로 도우며 함께 살자고 더부살이 식물 애기송이풀이 말하네요.

오늘 우리 주보의 표지를 장식한 애기송이풀은 더부살이하는 식물입니다. ‘남에게 얹혀사는 일’, ‘나무나 풀에 기생하는 식물’을 우리 국어사전은 더부살이라고 정의합니다.

애기송이풀은 다른 식물에 의지해야 살 수 있습니다. 기주식물에 얹혀살지라도 애기송이풀은 스스로 양분을 만들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절반만 기생하는 반(半)기생식물이라고 합니다.

단어에서 짐작이 되듯 기생식물의 삶은 기생하는 생명체 스스로에게는 득이 되지만 기주가 되는 식물에게는 전혀 도움 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식물학계에서는 그래서 기생과 공생을 구분해서 보는 것이지요.

하지만 애기송이풀은 다릅니다. 본인과 기주식물 서로에게, 나아가 주변의 생태계까지 이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대개 기생식물은 특정 식물을 기주로 삼고 거기서만 양분을 취하지만, 애기송이풀은 그런 게 없습니다. 이익을 얻으려 어떤 대상을 겨냥하기보다는 다양한 식물과 어우러져 살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식물에 기대 살면서 자신의 힘으로 광합성을 하고 성장하는 동시에, 더 다양한 생물이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드니까요.

애기송이풀이 사는 자연과 그렇지 않은 자연을 비교한 연구는 애기송이풀로 말미암아 생물다양성이 더욱 풍부해진다고 말합니다. 여럿이 조화를 이루거나 섞여 살 수 있는 ‘더불어숲’을 애기송이풀이 일군다는 것입니다.

그건 땅속에서 비롯됩니다. 애기송이풀의 퇴화된 뿌리, 그 여러 디여린 뿌리가 기주식물의 땅속줄기에 가닿으면 서로 다른 두 식물이 연결되어 애기송이풀은 더부살이를 시작합니다. 주로 썩이나 억새처럼 지하에 강한 땅속줄기를 지닌 식물체에 애기송이풀은 의존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숙주식물은 자신의 일부를 애기송이풀에게 넉넉하게 내어줍니다. 땅속에서 얽히고설켜 기주와 숙주의 경계 없이 더 단단한 공동체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행성에서 애기송이풀은 한반도에만 삽니다. 멸종위 기종이자 세계적인 희귀식물, 애기송이풀. 그 귀한 식물이 살 수 있는 땅이 얼마 남지 않은 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10여 곳 될까요. 그중 한곳이 우리 교구가 특히 깊은 관심으로 돌봐야 하는 영양군 수비면 검마산입니다. 비교적 최근에 애기송이풀이 자라는 것이 확인된 장소지요.

얼마 전 저는, 그곳에 가서 애기송이풀을 샅폈습니다. 겨울을 날 준비를 단단히 마쳤더군요. 애기송이풀은 4월 초순 제법 이른 봄에 개화하는데요, 땅에 바짝 붙어 방석처럼 퍼져 있을 펼치고 꽃을 피웁니다. 이맘때면 지상부는 시든 이후지요. 지금 검마산에서 애기송이풀은 휴면에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왕대축일이자 연중 마지막 주일이며 세상의 모든 결실에 감사드리는 미사가 곳곳에서 봉헌되는 날입니다. 쇠락이라기보다는 절정을 거두어들이는 때, 지난 계절을 돌아보며 새로운 생명을 준비하는 때, 이듬해 더 나은 수확을 꿈꾸는 시기가 이 무렵일 테죠.

만화방창은 공존에서 출발할 것이라고, 그러니 우리 서로 도우며 함께 살아보자고 말하는 나지막한 음성이 검마산에서 들려오는 것만 같은 날입니다. 그건 애기송이풀의 속삭임일까요.



애기송이풀 세밀화. 저작권_국립수목원

충양 본당 허태임 플로라(식물분류학자·국립백두대간수목원 연구원)

《허태임의 초록목록(김영사, 2022)》을 썼다.
한겨레21에 매달 「허태임의 산들산들」을 연재한다.



<안동시청 어린이집>에서 탄소발자국 줄이기 “지구살리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 1) 전기 절약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전기플러그를 선생님과 함께 뽑아보았어요.
- 2) 재활용품을 이용한 만들기를 통해 자원을 아낄 수 있었어요.



※ '탄소발자국 줄이기 함께 지켜요.'에서는 탄소발자국 줄이는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2024년에는 매주 <안동교구 소속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실시하고 있는 생태 환경 교육 이야기를 전합니다."

가톨릭문인회 문학의 날

안동교구 가톨릭문인회에서는 지난 11월 2일(토)부터 11월 9일(토)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가톨릭상지대학교 및 안동시립 박물관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문학의 날』을 개최하여 회원들의 시화작품을 전시하였으며, 특히 마지막 날인 11월 9일에는 『가톨릭문학 제12집 출판기념회』에 주교님을 모시고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양 본당 성지순례

영양 본당 역사자료부 권옥희 세실리아

11월 3일(주일)에 영양 본당 120명의 가족들이 <김수환추기경 사랑과 나눔공원>, <봉안경당>, <갈전마티아 본당>으로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김수환 추기경 사랑과 나눔공원>에서 '작은 예수님' 두봉 주교님과 감사미사를 봉헌하고, <봉안경당> 참배, <갈전마티아 본당>의 파이프로르간 연주 감상으로 짧은 가을날의 은총 가득한 성지순례를 함께 했습니다. 감사미사를 봉헌해 주신 두봉 주교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기쁨이 가득한 성지순례에 저희와 함께 해주신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령쇄신봉사회·꾸르실료 사목방문

11월 7일(목)에 교구청에서 <성령쇄신봉사회·꾸르실료 사목방문>이 있었습니다.



간호사회 사목방문

11월 8일(금)에 교구청에서 <간호사회 사목방문>이 있었습니다.



안동신협

가톨릭과 함께하는 서민은행
정기예금 3.3% (1년)
안동시 태사2길 28(안동의료원앞)
T.054-859-1710

영주 독일 보청기

노인성 난청 전문
김 성 문 (스테파노)
영주시 구성로 333
(신호동 오거리 성누가병원 옆)
T.054-635-2498, 010-3693-7684

서울 프라임 치과

임플란트·교정·보철치료·치주질환
원장 김재권 미카엘
안동시 옥동사거리
T.054-859-2879

서민 식육 식당

등심, 갈비, 차돌박이, 양지, 불고기, 삼겹살, 목살
점심특선: 주물럭, 불고기, 육회 비빔밥, 곰탕
전국 택배 가능
이택규 (마티아)
예천군 호명면 양지3길 21 (호명초 앞)
T.051-655-4994, 010-9494-4074

문경새재 임걱정가든

40년 전통 손두부전문농이버섯 한우두부전골
홍창식 안젤로 박순분 안젤라
문경읍 새재로 870번지
T.054-571-2285, 054-572-0027

안동 우리농

www.andongfood.net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며 모두를 살리는
생명농산물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T.054-843-0128

(주)이우텍

디지털문화 콘텐츠 전문기업
홈페이지, 쇼핑몰 구축·유지보수
홈페이지: www.iwootec.com
T.054-843-5700

천주교안동교구사회복지회 다미안 의원

피부질환, 레이저콜리닉, 보톡스
(수익금은 사회복지를 위해 사용합니다.)
영주시 봉화로 2(상망동)
T.054-633-6762



성진사우나

대표 김용숙 스텔라
송우근 바오로
문경시 중앙로 212
T.054-553-0059

아름다운얼굴피부과의원

피부질환, 피부미용, 보톡스, 필러,
레이저, 여드름, 아토피, 탈모, 비만,
검버섯, 점, 제모
피부과 전문의 의학박사 김중원 요셉
T. 054-553-2079

대게 좋은날

대게, 회 식당 및 숙박운영
대게, 킹크랩, 랍스타, 짬&코스 요리, 회, 물회
다양한 메뉴, 맛있고 입이 즐거운 여행! 숙박까지
이복도 요셉, 김경숙 마리아
010-2520-1926
영덕군 강구면 강구대게길 37
T.054-732-8357

**cpbc 특별대담
인구 소멸, 교회는 어떻게?**

방 송 시 간 :
본) 11. 25(월) 17:00
재) 11. 27(수) 22:00
11. 30(토) 10:00
12. 01(일) 19:30

박지훈 디모테오 신부님 출연

엘리마리

빙수 전문점
(콩고물, 카스테라, 망고, 초코, 딸기빙수)
김유경 엘리사벳 010-2831-8273
매봉 4길 14 (대동타운 아파트 앞)

로이젠 안동점

신사정장, 자켓, 콤비, 셔츠, 구두외
(빅사이즈 상의 140, 하의 52인치)
안동 홈플러스 건너편
서정희 마리스텔라
T.054-855-5949

+ 교구 봉안 경당(납골당)

경북 예천군 지보면 지풍로 983-41
분양 및 예약, 묘지 이장 소개
위령미사- 매주 토요일 15시
T.054-655-1781, F.054-655-1782





교구장 동정



11월 25일 교구청 꾸리아(~26)
11월 27일 학교법인 이사회
11월 28일 사목방문- 문인회,
미술가회

**축하합니다
영명축일**

11월 30일 전명철 신기룡 류한빈 류성태
안드레아 신부

**축하합니다
서품축일**

11월 30일 오정형 세례자요한
함원식 이사야 신부

교 구

사제서품 25주년
(수품일 1999.11.30)

축하합니다




사제서품 2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언제나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함께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정형 세례자요한 함원식 이사야

**2025학년도 대구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합격자**

이상헌 베드로(태화동)

**가톨릭농민회 안동교구연합회 10회
선종회원-지도신부 합동 위령미사**

일 시: 11. 27(수) 11:00

장 소: 구담 본당

문 의: 054-855-0127

-가톨릭농민회 안동교구연합회-

수취페 도미네와 함께하는 성시간

일 시: 12. 6(금) 20:00

장 소: 예천 본당

대 상: 함께 하실 분은 누구나

고3 피정

일 시: 12. 7(토) 14:00

장 소: 가톨릭 상지대학교 두봉관

사목국 공소탐방

일 시: 12. 8(주일) 10:00

장 소: 문경본당 정리공소

2024년 청년성서모임 미사

일 시: 12. 8(주일) 14:00

장 소: 교구청

※ 말씀으로 살아가는 청년성서모임에
관심있는 모든 청년들을 초대합니다.

제 단 체

제8회 안동가톨릭미술가회전

일 시: 11. 25(월)~ 12. 1(주일)

장 소: 안동 시립박물관 별관전시실

12월 전례꽃꽂이 연구회 월례회

일 시: 12. 7(토) 10:30

장 소: 교구청 강당

남성 제47차 꾸르실료

기 간: 1.9(목) 15:00~ 12(주일) 17:00 [3박 4일]

장 소: 농은 수련원

참가비: 1인당 160,000원

추천 인원: 각 본당 2명 이내

접수 기간: 12. 23(월)까지

신청 자격: 영세 후 3년이 경과하였거나
건강성사를 받은 분(신청서 참조)

신청처: 본당 신부님, 꾸르실료 간사

수 도 회 · 피 정

청주 초정성령회관 치유평정

일 시: 11. 30(토) 14:00~ 12. 1(주일) 14:00

회 비: 2만원(청소년 무료)

강 사: 김완식 요셉, 전국 유명강사

장 소: 초정성령회관

문 의: 043-213-9103/ 010-5482-6744

버 스: 조치원역 24:20 출발

가경 버스터미널 24:40 출발

젊은이를 위한 꽃동네 성령피정

일 시: 1. 3(금) 14:00~ 5(주일) 16:00

대 상: 중학생 이상 미혼남녀

장 소: 꽃동네 사랑의 영성원

회 비: 10만원

문 의: 010-5490-5345

상주가르멜 성소모임

고독과 침묵 안에서 기도의 사도직에
부름받은, 봉쇄 관상 수도생활에 관심
있는 젊은이들을 초대합니다.

장 소: 상주시 내서면 우서로 80-21

연락처: 010-3502-0507 (08:00~ 17:00)

12월엔 12. 7(토) 11:00 종신서원에 초대합니다.

1박 2일 치유평정(무료)

일 시: 매 월 첫째주 금요일 18:00~ (토) 17:00

강 사: 김완식 요셉 외 유명강사

진 행: 교영민 안드레아 (찬양팀)

장 소: 초정성령회관

문 의: 043-213-9103, 010-5482-6744

**가흥동성당 성전건립 기금마련
유기농 100% 레몬착즙 판매**

한 포에 100%이태리산 유기농 레몬이 하나.
가격: 1통 10,000원, 3통부터 한 통당 천원 할인!
주문전화 : 010-8962-9600

교 육

가톨릭상지대학교

**가톨릭상지대학교 2025학년도 신입생
수시1차 모집:** 11. 8(금)~ 11. 22(금)

7개 학부, 15개 모집학과

주말반 학과 모집: 사회복지과, 전기과

전산세무회계과,

드론운용정비과

야간 학과 모집: 경영과, 사회복지과,

외식창업조리과,

하이브리드자동차과,

노인건강지도과

입학 문의: 851-3021 <https://www.csj.ac.kr>

**2024년 가톨릭상지대학교 겨울학기
평생직업교육과정 모집**

신청기간: 11. 18(월)~ 선착순 마감

신청방법: lead.csj.ac.kr 접속 후 신청

총 23가지 수강료 할인 유형(최대 100%

환급 가능/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 참고)

신청문의: HIVE센터(851-3007-8/lead.csj.ac.kr)

생성형 AI 활용 과정 무료 교육

일 정: 12. 21(토), 28(토)/ 12. 22(일), 29(일)
(각 2일 8시간)

시 간: 09:00~ 13:00

내 용: 생성형 AI(ChatGPT 등) 활용하기
(SNS마케팅, 동영상, 이미지, PPT제작 등)

대 상: 고용보험 가입 중소기업 재직근로자

문 의: 가톨릭상지대학교 공동훈련센터
054-851-3136

기 타

가톨릭신문 성지순례

일 정: 3. 3(월)~ 3. 14(금)

발칸반도(메추고레)/ 465만원

3. 7(금)~ 3. 18(화)

2025년 희년 이탈리아/ 560만원

3. 11(화)~ 3. 21(금)

동부유럽 4개국/ 395만원

3. 28(금)~ 4. 8(화)

스페인 남부, 포르투갈/ 485만원

문 의: 02-2281-9070 www.cttour.org

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은인들과 함께하는 감사의 날"

일시 및 장소: 12. 3(화) 14:00 복지관 체육관

안동교구사회복지회 금성카리타스요양원

대 상: 장기요양등급판정 어르신

주 소: 의성군 금성면 동부로 2404

입소 문의: 054-832-6400